(一) 第五千二百八十三號 (昭和五年九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THE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SEOUL· (金曜日) 昭和十年八月十六日 (第二版)【日刊】

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十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逐日擴大되는 南部의 旱害
財政上緊急處分이 必要

一

全南北及慶北의 旱害는 날이갈스록 그 程度가 深刻하게되어 가게 되엇다。그中에도 全南北의 被害가 尤甚하게 되어서 時急한 救濟를 要하는 戶數가 十四萬에 達하게되고 …一萬四千戶를 算하게 된다。또 全南地方에서는 流離者가 續出하게 되어서 … 二百餘戶의 住民이 定處없이 떠나게 되엇다고 하니 이 얼마나 엄청난 事實인가

二

全南地方에서는 一府 十二郡의 被害가 벌서 一千萬圓에 達하얏다고 하는데 … [illegible]

三

小作人들은 代用穀物을 조곰이라도 耕作하려고 하는데 … [illegible]

四

지난七、八日頃에잇어서 全南에서만 하더라도 農作物의 損害가 … [illegible]

海軍 軍縮本會議開催
五個國參加를要求
英國、佛伊에豫備會商提議
日本大使館에도覺書手交

(寫眞은英首相볼드윈氏)

【電通東京電話】 華府及倫敦兩條約의 失効에依한 無條約狀態의 對策으로 … 英國政府는 … 軍縮新協定締結에 … [illegible]

萬一 佛伊와의 交涉에 成功하면 英國政府는 十月頃 日英米佛伊의 五個國參加를 求하야 軍縮本會議를 開催할意向이다 [illegible]

委任統治地에對한 日本의權利移管
聯盟委員會서問題化

【電通壽府十四日發】 聯盟委任統治委員會의 議事錄은 … [illegible]

委任統治委員
英國代表
委任統治委員

伊國、軍備强化
二萬壯丁을徵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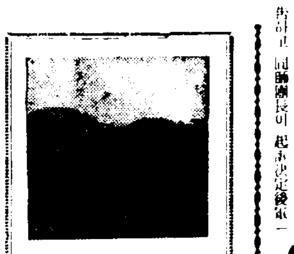
【電通羅馬十四日發】 伊國政府는 … 一九一一年、一九一三年、一九一四年生의 壯丁 … 二萬名에 對하야 … [illegible]

民政六大政策
【電通東京電話】 民政黨은 … [illegible]

岡田法務官을
豫審官으로任命
永田中將刺殺事件

【電通東京電話】 故永田中將을 … [illegible]

五千年間朝鮮의「얼」
第十四、加耶國 (一)
鄭寅普


五陵全景

一、建國古傳

加耶(伽倻)諸國의 故史하고 … [illegible]

林陸相決意强硬
辭任은벌서時期問題
閣議서進退問題에對하야言明
後任엔渡邊大將推薦?

【電通東京電話】 林陸相은 十五日 定例閣議前의 岡田首相과의 會見 … [illegible]

閣議散會後 林陸相談

汪精衛氏에게 慰留電報發送
中央政治會議

【電通南京電話】 十五日의 中央政治會議는 汪精衛氏를 慰留하기로 決定하고 … [illegible]

八月十五日
中央執行委員會

日本領事等二十名
中國自衛團에게被襲
◇第二中村事件發生?

【電通承德十五日發】 承德憲兵隊本部入電에 依하면 中根領事、千葉大尉、太宰居留民會長等約二十名은 灤河下航途中 十二日午後七時撤河橋下流二킬로 地點에서 自衛團의 襲擊을 받엇는데 그後消息이없어 狀況이 不明하다고 한다

時局收拾의 廬山會議
軍事財政各方面의 各界巨頭會集
蔣氏突然廬山에歸還

【南京十五日發聯合】 行政院長汪精衛氏는 辭表提出後 … [illegible]

治維法의改正을 陸軍側에서提案
◇怪文書의影響에鑑하야

【電通東京電話】 怪文書에對하야 … [illegible]

陸軍事件에關하야 三相意見交換

【電通東京電話】 十五日의 閣議散會後 … [illegible]

師團長會議後 陸相의進退注目

【東京電話聯合】 林陸相의 進退 … [illegible]

松岡滿鐵新總裁
廿二日赴任決定

米、社會安定法案에 부大統領이署名

【華盛頓十四日發聯合】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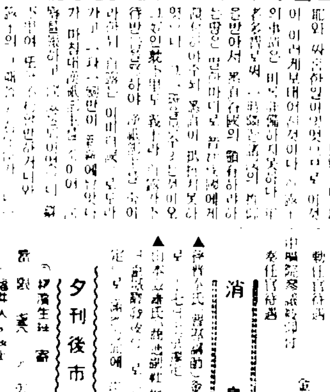
汪氏家族同伴 嶗山으로轉地

【靑島十四日發聯合】 … [illegible]

辭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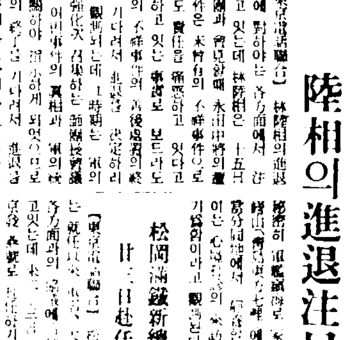
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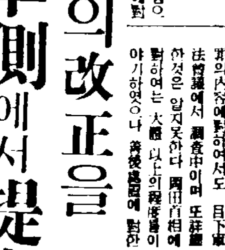
夕刊後市況



營業品目
處方調劑 醫療藥品 新藥各種 有名賣藥 化粧品 鑛工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洋藥과器械
山崎仁壽堂

パイロット萬年筆 特約店 楠商店

パイロット 高級萬年筆



中風高血壓腦病 リキシン(イマツ)로고처
熟眠이되고精氣漲溢、血壓도降下

赤露에서 密派한 共黨員 越境潛入中被檢

卄五名中 五名이 朝鮮으로 新義州、定州에서 嚴調

【新義州特派員寮廷根發電】

全朝鮮에 擴大?

檢擧의 旋風은

우리의 손으로 처음된 江華人造絹工場

資本金五十萬圓으로 이사、마사、이새등으로 장래유망

棍棒强盜

雲峰에 넘노는 火龍 "東方의 光明"은 떠오르다

해 오르는 白頭를 바라보며

列車에서 玉童子를 나어

千餘反滿軍을 包圍코 攻擊

油川氾濫으로 北黑線不通

大衆의 利益擁護코저 典當舖取締를 統一

警務局에서 資料蒐集研究中

漸進的으로 利率을 引下

後藤部隊 戰死卄三名

新京郊外에 反滿軍襲擊

三岔河驛에도 一時間激戰

담배불로 火災

職業이든이라다 貞操만 빼긴 女子

조선대 취지사거 警察에 눈물로 呼訴

慶南勉勵大會 釜山에서 開催

그날그날

(陽)八月十六日(金曜)
(陰)七月十八日(甲子)

日出 前五、四八 日入 後七、二六
月出 前八、一五 月入 後七、三五

【滿潮】
仁川 前六、二五 後六、四〇
釜山 前五、五五 後六、□
鎭南浦 前一〇、三〇 後一一、四五

오늘의 天氣

날이 좋습니다

運動競技

滿洲와 對抗할 朝鮮陸上陣

全部二十名一團 十八日大連에 出征

◇朝鮮의 陣容

日本學生陸上軍 歸途全滿軍과 一戰

甲子園中等野球

吳港中3A 飯田商2

大分商10A 北津中0

二次戰抽籤

全京城野球팀 歡迎

補血强壯新藥

부루도ー제

各帝國大學病院 指定常備藥

더위에 지친 몸에 부루도ー제를 補給하시라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店 大阪道修町

KB-79

旱害救濟工事費 最少限三百萬圓

적어도 이 금액은 잇어야 한다고

近藤知事協議次上京

【광주】 전라남도내의 금번의 대한발로 인하야 아사까지도 이양치못하엿다는 二만정보와 별서 이앙하엿으나 별로 수확치못한것이 八만여정보로서 합하면 十여만정보가 피해되엿으므로 약소농민 十만호가량이 실업(失業)하고서 도로에 방황한다고 함은 본지에 기보하엿거니와 전라남도당국에서는 강(姜)산업부장과 시야(矢野)내무부장이 재해지를 실지답사하고 돌아와서 이재민의 구제사업을 협의중 최소한도 三백만원의 경비를 갖어야 토목공사 사방공사 제언수축공사등으로 이재민들의 연명하기에라도 도리가 잇겟다고 한다.

그러나 三백만원이라는 호대한 금액은 전남도비 一년간의 예산액에 해당하므로 도당국으로서는 어찌하여보는 재주가 없으므로 오는 十五일에는 근등(近藤)지사가 상경하야 총독부당국과 그 재원에 대하야 협의하리라는데 여사하다고 한다.

濕田과改修費	二百萬圓
土木工事費	七十萬圓
堤堰修築工事費 砂防工事費	三十萬圓

상소하야 사장에서 매일 三천여명의 노동자 갈수를 위시하야 대흥산(大興山)공사장 한천면지 토지(土地)회사 매립공사등 시내 二十여개의 시설공사를 중지하면 그 사람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고 ...

이러한 공사천지의 정신이요 八천에 달하다고 한다.

노동사진중 도시로 실공정을 입고 잇는 정시에는 고려저려 여러의 벽실도 서쪽으로 갈구려 저 갈을 따라 주택난의 부르지즘과 아울러 하로에 五, 六十전을 받는 그들의 입자리도 앞으로 큰 문제라 하야

▲臨時共同宿泊所
▲失業人事紹介所

등을 부영시설이 (개인경영도 잇음) 필요하다 문제라 하야 일부 유지사중에서는 여론이 비등하여 잇으며 시설 서둘한 방법을 마지 하는 그들은 공부의 기세가 농후하여 잇다고 한다.

仁川府外에 大工場簇出

◇仁川府擴張前提?

【인천】 인천에는 봉방은 조업중이며 오다후구, 쭝국, 일본제분은 각각 공사가 진행되어 근근 조업을 하게 되엇다는데 그래도 부족하야 우복일본내지의 대재벌이 속속 진출을 하야 파발은 신호인송(神戶鋼什)이 부외 도화리(道禾里)四五번지에나 기지를 상하엿는데 또 근간 복정시(福井市)에 잇는 창화공업주식회사(昌和工業株式會社)에서는 부외 봉정리(鳳亭里)조선연업주식회사(朝鮮…株式會社)안에 二천五백평을 매수하되 염식공장(染織工場)을 건설하려 기지 매수를 인천부윤에게 의뢰하야 실지조사까지 하고 지주와의 협정까지 끝난 모양이라 한다. 그런데 이와같이 인천외부의 조건으로 인천부 동대 공장을 위시하여 소년형무소(少年刑務所)등이 속속 건설되는것은 인천부 구역확장의 전주가 인듯하다.

가하며가 면가되어 성주가시요의 ... 해에서 인시매수한 이후 ...

印紙密賣한 丁 【성주】

七、八千勞働者 清津에集中

생활로를 찾어서 모이는이 凉風은 ㄴ 斷腸曲

【청진】 명실 국제항을 전수하고 잇는 청진항(清津港)에서 어

堤川蹴球大會

【제천】 제천축구단(堤川蹴球團)주최와 본보 제천지국 후원인 제二회송소년 축구대회는 지난十一일 오전九시부터 제천공립보통학교교정에서 대회회장 안하이(安熙徽)씨의 개회사로 막을 열엇는데 이날의 참가팀은 원주(原州) 충주(忠州) 단양(丹陽) 제천(堤川)四개군六단체로 최후의우승은 원주군에 돌아갓다 한다.

故崔尙鉉翁의 銅像除幕式

八월三十一일로 결정

合一校落成도同行

【강화】 우리네의 교육공로자 인 강화합일학교(合一校)의 전교장 고최상현(故崔尙鉉)옹의 기념동상제막식은 지난五월 二十一일에 거행하려고 제반준비를 하엿든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를 八월하순으로 연기하엿든바 지난十일 동교 임원회에서는 결의한바 八월三十一일로 제막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엿다 한다.

소요경비는 二천원으로서 일반 유지의 자진기부로하기로 하바아 기 과부회방사의 승락이모이지안 어 동위원회에서는 저지안은고심 에 거행하려고 제반준비를 하엿다.

공사석수를 앞두고 봉상제작소에 대금을시급이야함것을 아직잣 하고 잇으며 또 잇든사람들은 인사 임에서도 관계당의에성신과노력 방면에잇어 만들어잇기를바라마지안는다고 한다.

渡航證明問題로 現職巡査瀆職綻露?

◇사기사건 취조중에 발각되어

釜山署內의不祥事件

【부산】 도항증사건관계로 인한범죄사실은 날마다 늘어가는 현상인데 그 만원수증금을 취하여 실패한거 이니로 반응을 걸어하야 도항사무를 보든 경찰계에 된 등의 순사로 아는 인본기부엿나고 하나 가사실이 되나면서 증인한사람이 약 부 인서이 아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엿 한 사람 ...

사금명도 관계가 잇는것을 공술하야 부산서에서는 고소인가 나에게 ...을 내려보고 현직순사의 부 사실을 엄중하게 조사중인데 사실이 판명되면 관계순사도 구속 작정이라 한다.

부산부내 학정(鶴町)이 이 방면 삼년가 이번에 ...

食刀로亂刺 四名을重傷

술김에 다시는대로 찌러서 鐵山酒店의慘劇

【철산】 사노로 난자하야 四、五명 중상한 사건이 ...

지난十一일오후 七시경에 철산군 서림면 서사동(鐵山郡 西林面 西…)김용수(金…)의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또한 노파와 그외 수인을 란사 하는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 정서봉 김성현(金成鉉)과 김대...을 난자하야 중상을 입혓는데 가해자는 ... 이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 ... 방방의원(…東醫院)에 방금 입원치료중이라고 한다.

畜牛三十四頭가 列車內에서窒死

공기유통이 잘 안되는 까닭에

會寧、城津間輸送中에

【성진】 세간에 진기한 축우(畜牛)가 일시에 사방이 성진(城津)에 반생하엿다. 이제 이를 일아보건대 축우상 고판 고교(高橋)씨가 회령(會寧)등지에서 축우 一백두를 매가하야 성진 이출우검역소(城津移出牛檢疫所)를 거처서 보내 오려고 지난 팔일오후九시十五분 성진 역에 도착하엿는데 이일인二十二시외 열차中의 一대에 실고 ... 축우상 고교(高橋)씨 ... 이를 운반하려 할때에 그중 三十四두는 공기가 통하지 못하야 질식하여 죽었다 ... 회령(會寧)발 오전九시十七분 화차(貨車)로 이 축우를 운반하고 잇엇다는데 이 손해는 약 一천六백원이라 한다 ...

侮辱當한酌婦 斷指로抗議、

차후로 작부들 고만 둔다고 良心의苛責을받고

【울산】 사람이 얼마나 천한 다는 대명사가 되여잇는가! 파연 이세상에서 천한사업인가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도 한 용사한 직업여성이엔 틀림없다. 작부라는 보금을 당구두 손가락을 끈어 사회제도에 항의한 작부가 울산(蔚山)에 잇다.

울산 보려과에서는 근래 대구로부터 김옥도(金玉桃)(ㄴ)라는 작부를 고용해 잇는바 생김이 미인이라 울산의 젊은 남자의 인기를 송진중하엿다 한다.

때마츰 지난 三일 울산 최모 (崔某)외 수인이 해러과에서 놀앗는바 전기 옥도의 태도가 손님에게 대하야 너무나 불친절 불근신하다 하야 "작부"운운하며 홍쇄한 나머지에 술상을 옥도에게 던젓든바 즉석에서 전기 옥도는 떠러지는 피눈물과 같이 옥같은 여성의 지보되는 무손가락을 잘라 버리며 모모한 손님에게 대하야 차후부터 작부생업을 포기한다고 하엿다 한다.

南江慰靈祭

【진주】 지난十三일 백중(白中)명절을 기하야 진주 수상교포재단에서는 수백명의 신도가 남강의 강중에수청의 배를띠우고 수송원혼의 위령제를 성대히 거행하엿다 한다.

安東支局主催의 三氏歡迎會

【안동】 본보 안동지국(安東支局)주최로 안동속의 권태종(權泰鍾)권목인(權福仁) 천세근(千李根)三씨의 환영회는 지난 十三일 오후五시부터 시내 안동공립보통학교(安東公立普校)강당에서 개최되엇는데 전기 三씨는 모다 안동출생으로 현금 조선악단(樂壇)과 운동계(運動界)에 명성일 뿐 아니라 일본내지의 사계(斯界)에 잇어서도 각각 최고표창의 영예를 지녀하엿든 만치 안동인사의 인기는 비상하야 당일의 회원은 백여명의 다수에 달하엿으며 개회가 되자 본보 지국기자 권상하(權相鎬)씨의 환영사를 비롯하야 대미측으로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지국장김용하(金裕文)양씨와 三씨의 열렬한 축사가 계손되엇으며 끝으로 三씨를 대표하야 권태호(權泰浩)씨가 답사를 마치고 곧 주연이 벌어젓는데 수백가에는 성로 단란한 가운데 축배와 환사를 교환하면서 겨의없는 가납을 도하야 동일오후 七시반경에 폐회하엿다고 한다.

兼二浦大火

손해 약三천여원

【겸이포】 지난 十三일 오후十시경 황해도 겸이포읍(兼二浦邑)에서는 근화재가 발생하야 소방대의 전력으로 약 한시간후에 진화되엇다 한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겸이포읍 명치정(明治町) 一五번지 안등(安藤)상점에서 발화되어 一동 二호를 전소하엿다 하며 발화원인은 실화라는데 손해는 약 三천원가량이라 한다.

朝滿教員講習

延吉에서開催

【연길】 간도성교육청(間島省教育廳)에서는 지난 十一일 오전 八시부터 五일간 매일六시간씩 교원 연길제일소학교대강당(延吉第一小學校大講堂)에 제一회조만교원강습회(第一回朝滿教員講習會)를 개최하엿다는바 강습생은 一백四十여명에 달하엿다는데 그과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한다.

倫理思想 間島省學務科 尹泰東氏
建國精神教育學 文教部督學 高尾氏
自然科學 京城帝大豫科教授 森氏

土地二千坪

簡易校에寄附

【양덕】 평남양덕군 온천면상석리(溫泉面上石里)는 간이학교와 거리가 三十리나되어서 생도들의 통학이 불편하므로 당지의부형들은 간이학교를 설립하려고 무한히 애를썻으나 귀혼금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든바 온천면 상신리(溫泉面上信里)조유록(趙裕祿)씨는 자기의토지 一천평을 간이교 설립에 자증하엿는데 지난달중순부터 간이학교의 간판을걸고 생도五六十명이 취학하다고한다.

野獸退治를 道當局에陳情

【재령】 황해도 재령군하성면 신원리(新院里)와 용장면 신흥리(…)를위시하야 장수산(長壽山)부근 수천주민들은 근년에 야수(野獸)들의 습격이 심하야 안심하고 생활하수 없다고 지난十일 양부락(兩部落)대표자 四명이 면서 날인하야 야수퇴치해달라고 황해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습다 한다.

이제 그 장수산 一대 부근수천주

八、시체는어대로(四)

眉愁

尹白南 作 李青田 畫

(91)

민들이 화전을 경작하야 근근히 생명을부지하야 오는 그들의 생명인 보리 콩 감자 채소등은 각종야수들의 습격을받아 전멸상태에빠져 잇다는데 농민들은 매우불안중에 잇다한다.

「정오라십니까」
「그럿습니다」
「황혼때로 해주서요」
「황혼때나 정오때나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오니까」
「아니 죽이는 체하기는 매한가지오니까」
「네?」
「그건 그럿습니다만은 내몸이 몹시아프니 저녁때로 해주시면 그 때까지에는 정신도 나겟고 또 남의눈에 띄이지 안키도 쉽거니와 질때가 조치안습니까」
「나가서 보시라고」
「그러고말고요 남편이 살어가는것을 이눈으로 보아야 허질안켓읍니까」
「그부시무시한 광경을 보시면 무엇하십니까」
「것방갓든것쯤 구경헐들 상관잇읍니까 흥인대비人반같은 전쟁에도 나가잣거니」
「그건 그럿읍니다마는 그럼 어데장군에게 청을해보지요」
하고 장영이 밖으로 나가더니 한동안 후에 도라와서 장영의 허락을 맡 안주에 소식을 전하엿다고 말 어 저녁때에 하기로되엇다고 말 하엿다.

홍도는 몸이아픈것을 구실로삼 어 조금이라도 장영의 맞나지안엇다.
그러고저녁때 되기를 천추와같이 기다리엇다.
어제남편 정생이 자기에게하든 말이 귀에 쟁쟁하고 남편이 그립지 안타 자기의 유원망한 남편이 아모것도업고 미워함이 없다 다만 자기의 운명을 한탄할뿐이다 자기는 생애를 슬퍼하는 때문이 거니와 남편의 생사여부를 정하야 그래도 가슴이 터질듯한 이 눈으로 볼 필요가 잇어니 장영의 그 다른 의도에 의심이 낫다.
「그러나 의심하는 방 몇구절에 부셔 드리어 잇다.」
장군에 그 장영이 무엇때문에 말을 하고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장군과 그 장영이 무엇때문에 만다 로서 이렇게 삼아도 쇄해는정 만드는지 알고도 그리는지로 알지

「위부지도오」
하고 방긋이 웃을뿐이엇다.
시가가기를 고대하는 사람에게 는 초하루 짧앗든해도 상당이 길엇다.
그러나 지리하게 여긴 해도 어 느덧서쪽 산들을 넘고 저녁 회색 장막이 사면으로 덥기시작하엿다.
나발소리
종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바람에 실려 흥도의귀에 들리어 온다.

보내순다면은 오겟습니다 여기서 허다 깨우러 죽을터이니 그런줄 아시오」
엽같이 새파래질려서 독살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아」
하고 장영은 당황하여 손을 들어 만리는 신호를 하며
「그래서 싫다니까 천만에 그러나 흥도는 못가시니다 군즁 내 자리로 내보내드리리다 그러나 흥나를 안동해드리겟으니 남의 눈에 띄이지안토록 구경하시 오」
하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다 상 판 군졸을 불러 나가는 듯하엿다

까지 들려온다 홍도의 가슴은 뛰 기시작하엿다.
「인제 시간이되엇구나 남편이 형장에 끌리어갈시간이」
속으로 이러케 생각하고 무슨 기별이 잇으려나 기대하엿더니 아 무 방문없이 무단한소리와한께 장영의 연설이 나타낫다.
「남편이 형장으로 나갓나니까」
홍도는 장영의 얼굴을 보자마 자 이러케 나갓노라고 말한다.
「지금 나갑니다」
「그럼 나두 나가게해주서요」
「그러지요 그러나 그 광경 연수러 울텐데 양상의 말고이 얼른 허시 받을 쏫는다하지라도 여자 의몸으로 그러한광경을 보실것 이 없고 더구나 몸이편치안으시니 이대로 잇는게조켓다고허 십니다」
「아니오 아니오 안그래요안그 래요」
홍도는 고개를 흔들며 힘잇게거절한다.
「이눈으로 보기전에는 안심할 수없읍니다 만인에 날 아니더

謹告

任總務	安鼎淳
任總務	林鍾爗
任記者	金永斗
任集金員	白亨珍
任顧問	崔鎭鵠 李步乾 梁在敏 吳性珪

昭和十年八月九日

東亞日報社 寶城支局

明治의 乳製品 御愛用者 百萬人에게 謝恩大景品進呈!

バトロゲーン、明治コナミルク（金太郎印、子供印、赤罐）及明治의各種ミルク並罐

1等 二〇〇本	乳母車、ベスト寫眞機、ボータブル蓄音器、桐箪笥、置時計、姿見鏡台、純絹紋パレス、着尺
2等 〇〇〇本	スーツケース、パイタラップン、鏡臺、美術置時計、柱時計、パラソル、フレシー映寫機、子供自動車、三輪車、ベビー服セット、ネンネコ
3等 〇〇〇本	オシメカバー、獨逸人形、吸入器、電氣スタンド、子供用純毛布、ベリーセット、番茶セット、高級玩具、文房具セット、アリメント
4等 一〇、〇〇〇本	明治パトラー
5等 八九〇〇〇本	明治ミルク洗粉
6等 一〇〇〇〇〇本	特製赤ちゃん石鹸

明治製菓株式會社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서不은 ノーシン이다●

金銀福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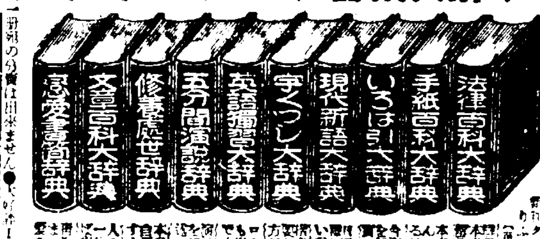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平壤府大和町四番地 佐光産婦人科院 醫學博士 佐光弥三郎

一粒三百メートル

グリコ 에는榮養素八種이含有한故로、아이들 군것으로는 이것이第一입니다。

辭典拾冊 合本 タダの金一圓



殘本處分大投賣斷行

昭和十年用 模範日記 發賣元 現代出版社

우리의옷감 태극성광목

天ぷらフライ用 星印の胡麻油 景品附大賣出 期間 景品 星印胡麻油特約代理店 和成商會

本社京販

朝鮮劇場

港祭

晴れる木曾路

感 キッラースキン

朝鮮、滿洲、中國 上期財況一般

朝鮮銀行總裁 加藤總裁 演述

朝鮮에 잇어서의 一般產業狀態를 보면 米는 昨年 實收高 一千六百七十一萬石을 算하고 이를 前年에 比하면 百四十七萬石의 減收를 告하엿으나 米價는 日本內地의 凶作을 이어 高價이엇고 當期中 朝鮮米의 移輸出高는 四百九十六萬石에 達하야 이를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十五萬石의 減退이엇으나 其輸出價額은 前年에 比하야 도리어 二千八百餘萬圓의 增加이엇다 …

朝鮮痲藥取締令施行規則 (二)

=全文四十二條=

第十三條 取締令第五條의 規定에 依하야 痲藥을 製造、輸入 又는 移入하야 販賣하는 者 又는 이것을 小分하야 販賣하는 者는 痲藥의 容器 又는 被包에 業務所의 所在地及氏名 又는 商號를 記載하는 外에 左의 事項을 記載할 것

一、取締令第一條第一項 各號에 該當한 痲藥에 잇어서는 痲藥이라는 文字

二、取締令第一條第一項第一號、第三號 又는 第四號에 該當하는 痲藥으로서 五瓦以上을 內容으로 하는 것에 잇어서는 製造、輸入、移入 又는 小分의 年月日及 年期追番號

三、取締令第一條第一項第八號乃至第十號 又는 第十二號에 該當한 痲藥(日本藥局方에 記載잇는 藥品을 除함)에 잇어서는 …

第十四條 取締令第七條第二號의 規定에 依하야 …

第十五條 取締令第七條第二號의 …

第十六條 …

各銀行消息

◇…殖銀定時總會 …

◇…商銀人事異動 …

◇…漢銀定時總會 …

法律顧問

【問】 …

【答】 …

(辯護士 李仁)

貳百萬人洲無漏當籤되시는

破天荒의 大懸賞

懸賞課題

坂東好太郎氏가 日席上에서 入江たか子孃、川崎弘子孃、飯塚敏子孃에게 『당신네들이 平素에 늘 쓰시는 크림은 무엇입니가?』 하고 물엇더니、다가치 『우리가 쓰는것은 거츰을 防止하고、살결을 곱게하고 白粉이 잘 오르게하야 지아니게 하는데는 第一、조코、白粉下로도 化粧이 쉬지아니하는、特殊한 效果가 잇는 クラブ○○クリーム 입니다』 하고 對答하엿습니다。

무슨 クリーム이까요?

解答쓰는法

三大스타ー가 對答한 クラブ○○クリーム의 이름을 完全히 쓰시오(다만 ○○에다가 適當한 文字를 넣으면 正解가 됩니다)

回答의 方法

▼用紙▲ 買上하신 クラブ美身クリーム(又는 クラブ淡白クリーム、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의 外函을 回答用紙로 하야 그 裏面에 (イ) 答 (ロ) 住所及姓名 을 알아보기 쉽게 쓰십시오

▼回答은 一人이 幾枚라도 應募할수 잇습니다 (此境遇에는 各一枚마다 答과 前記二項을 記入하십시오)

▼보내는法 答案은 近傍의 クラブ化粧品販賣店으로 갓다주십시오 (販賣店에서는 各位의 答案을 取合하야 本舖로 送附하므로 郵稅와 手數를 덜게 됩니다)

萬若 直接本舖로 보내실 境遇에는 重量을 輕減하기 爲하야 外函의 天地(蓋와 底)를 切棄하고 封筒에 너흐십시오。郵稅는 十五枚(約四匁)마다 參錢의 比例로 切手를 貼付하십시오 (郵稅不足은 遺憾이오나 接受치 못하겟습니다)

▼보낼데 大阪市浪速區水崎町、東京市京橋區銀座 中山太陽堂 クラブ美身クリーム懸賞係

締切 昭和十年十二月末日

特等 貳百名

大楠公(銅像付大理石)置時計 一個
新錦紗訪問服 一着
晴雨兼用コート 一着
八端客用座蒲團 一組
洋風書棚 一個
流行小型寫眞機 一個
(上記中隨意選擇 一品進呈)

壹等 參百名

流行型パラソル(洋傘) 一本
新樣式ショール 一枚
村山大島絣 一反
ボストンバッグ 一個
折疊式乳母車 一臺
(上記中隨意選擇 一品進呈)

貳等 五百名

プラトン萬年筆(男子用 女子用) 何れか 一本

參等 四千名

若返り化粧水クラブ乳液 一個

四等 一萬五千名

プラトン(又は)二色シャープ鉛筆 一本
クラブ煉齒磨(チューブ入)(中) 一個

五等 參萬名

潤實牛煉 クラブ齒磨(中罐) 一個

販賣店各位에 請함: 本懸賞에 關하야 販賣店大優待規定이 잇사오니 아못조록 本舖로 照會하십시오。

本賣出의 早入데 — 揭揚의 販賣店에서 クラブ美身クリーム(又는 クラブ淡白クリーム、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을 買上하시는 貳百萬人께 無漏히 左의 優待景品中 무엇이든지 一個를 當場에 進呈

漏れなく當る優待景品

家庭 ブラターム (試用罐) 一個
美の素 クラブ石鹸 (試用型) 一個
クラブ洗粉 (試用袋) 一個

C. 102

ClibPDF - www.fastio.com